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7명 당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총 10명의 인쇄인이 당선됐다. 총 24명이 의회 진출을 시도한 가운데 광역의원 선거에선 6명이 도전해 3명이 당선됐으며, 기초의원선거에선 총 18명이 나서서 7명이 당선 기쁨을 누렸다. 시, 도의원 당선자는 인천 중구 제1선거구의 안병배(진문사인쇄소·45세), 충남 연기군 제1선거구 유환준(일신인쇄사·56세), 전북 무주군 무주제1선거구 윤완병(현대인쇄광고·46세) 의원등 이다. 구, 시, 군의원 당선자는 서울 도봉구 창제5동 목충균(세로와상사·62세), 서울 송파구 거여제1동 장경선(이레문화사·61세), 부산 중구 중앙동 영주1동 김만택(한일인쇄·58세), 부산 동래구 사직제1동 강신두(영남종합인쇄·48세), 대구 북구 침산3동 김형구(경원인쇄소·60세), 충남 보령 대천1동 임대식(명문당인쇄소·52세), 경북 경주시 동천동 김병태(경주인쇄소·44세) 의원 등이다. 새로이 의회에 발을 들여놓은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인쇄업 경영이 선거에서 크나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당선자 모두는 인쇄업을 직접 경영한 경우였으며, 후보자 가운데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각각 1명씩 2명의 인쇄 현장 근로자들도 있었으나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돼 인쇄업의 위상을 한층 드높인 대표 당선자 인터뷰와 10명 당선자들의 인적 사항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유환준 의원



김만택 의원



임대식 의원



김병태 의원

당선자 프로필	
<p>▲ 강신두(영남종합인쇄 대표 48세) 부산시 동래구 사직 제1동 선거구 / 영남상업고등학교졸업 / 한나리당동래구지구당 조직부장, 동래소방서의용소방대사직지대장</p>	<p>▲ 윤완병(현대인쇄광고 대표 46세) 전북 무주군 제1선거구 /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과1년 재학중 / 연청 무주군지회장 / 무주군 공무원</p>
<p>▲ 김만택(한일인쇄사대표 58세) 부산시 중구 중앙동·영주1동 선거구 / 동아고등학교 졸업 / 중구평화통일자문회의의원, 오륙도 라이온스클럽 회장 역임</p>	<p>▲ 장경선(이레문화사대표 61세) 서울시 송파구 거여1동 선거구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 송파 장학회 이사</p>
<p>▲ 안병배(진문사인쇄소대표 45세) 인천시 중구 제1선거구 / 서울보건대학졸업 / 새마을 신포동협의회 회장</p>	<p>▲ 김형기(경원인쇄소대표 60) 대구시 북구 침산3동 선거구 화령초등학교졸업 / 침산3동 새마을금고이사, 대한민국무원연합회장</p>
<p>▲ 유환준(일신인쇄사대표 56세) 충남 연기군 제1선거구 / 건국대지역사회개발대학졸업과 졸업 / 초대 충청남도교육위원, 조치원중학교 총동창회장</p>	<p>▲ 김병태(경주인쇄소대표 44세) 경북 경주시 동천동 선거구 영남대학교원예학과졸업 / 경주중 고등학교총동창회 총무, 영남대학교경주동창회 이사</p>

“도로망 확충 앞장”

98년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임대식 의원 당선자는 지역 토박이다. 임 의원 당선자는 이번 당선이 지난 4년간의 의정 활동을 성실하게 평가해 준 지역 주민들의 덕분이라며 이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의회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의회에서 예결위원장을 맡는 등 활발한 의회 활동을 선보인 임 당선자는 국도일보, 충청일보 등 지역언론으로부터 의회활동에 좋은 평가를 받은바 있다.

1974년도부터 인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임 당선자는 관내 도로망 확충과 노인, 여성, 장애인 가정에 대한 사회복지체계를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 세웠다.

30년 가까운 인쇄업 경영으로 공직자들을 가까이 할 수 있어서 기획 능력, 행정 경험을 터득하는데 큰 도

움이 됐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욕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임 당선자는 의회에 진출 시 “주민들의 뜻이 올바르게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국, 도비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시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대변자가 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대천고등학교를 졸업한 임 당선자는 보령시배구협회장, 새마을운동보령시지회 운영위원, 충청은행 대천지점 명예지점장, 보령사랑운동 추진위원회 위원, 보령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보령시 체육회 이사, 민주평통보령시협의회 위원, 보령시지체장애인협회 후원회장, 대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복지시설 확대 최선”

창5동 구의원 선거에 3번의 도전 끝에 당선된 목충균 의원 당선자는 이번 당선을 창5동을 위해 좀더 일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로 받아들였다. 아울러 선거기간동안 물심양면으로 내조를 해준 부인에게 당선 영광을 돌렸다. 복지분야에 특히 관심이 많은 목 당선자는 독거노인 아파트 신축, 복지회관 유치 및 취업 알선, 2세 미만 영아원 설치를 주 공약으로 내 세웠다.

목 당선자는 75년 실크 인쇄로 인쇄와 인연을 맺었으며, 78년 4월에 일본에서 스티카 인쇄기를 수입 장교동에서 본격적인 인쇄업에 뛰어들었으며, 2001년부터는 서울시 중구 저동으로 공장을 이전했다.

목 의원은 인쇄업 경영이 선거에 크나큰 도움이 됐다

고 전했으며, 특히 직접 인쇄공장을 운영하는 관계로 선거에 필요한 어깨띠, 차량 부착용 스티카, 현수막, 홍보물 등을 상대 당선자 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충당할 수 있었고, 60이 넘는 나이에도 일을 하는 사람이란 깨끗한 이미지를 주민들에게 심어 줄 수 있었다고 했다.

목 당선자는 의회에서 복지분야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동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목 당선자는 창5동 바르게 살기위원회 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방위협의회 위원 등을 지낸 바 있으며, 현재는 도봉구 평화통일위원회 위원 직함과 시립도봉노인복지관 자문위원을 겸임하고 있다.